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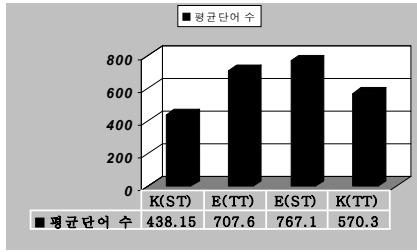
병렬 말뭉치를 통한 한국어-영어의 번역 단어수 연구

최 정 아
(서원대)

1. 서 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텍스트 중에는 번역문, 즉 원래에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인 텍스트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영어로 쓰여진 텍스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영어로 쓰인 원문텍스트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텍스트를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한국어 번역문의 단어의 수가 훨씬 많으리라고 짐작한다. 아래 <그림-1>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원문과 번역문간에 전체적인 단어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¹⁾

1) 본고에서는 단어의 정의를 '최소 자립 단위', 즉 문장 안에서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문법 단위'라고 보며, 영어와 한국어의 단어를 정의함에 있어, 영어의 단어는 정자법 단어(orthographic word) (Sinclair, 1991:176), 한국어 단어는 '최소 자립 단위'라는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견해로 종합식 체계, 즉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보지 않는 견해를 단어로 택하였다. 특히 이 견해는 이론적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영어 계열의 문법 이론을 주



<그림-1> 한국어-영어간 평균 단어수 비교도

이러한 양 언어간의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수는 실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말뭉치 연구, 즉 실제로 사용된 언어 자료를 그대로 모아 놓은 것으로, 특히 이 접근법은 말뭉치 언어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양에 기반한 분석법으로 (quantitative corpus analysis)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출현 빈도 (frequency)를 분석한 접근법이다.²⁾ 이 말뭉치 기반을 둔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원문 텍스트에 사용된 평균 단어수는 438.15개이고 한국어 번역문 텍스트에 사용된 평균 단어수는 570.3개이다. 반면에 영어 원문 텍스트에는 평균 767.1개의 단어가 영어 번역문 텍스트에는 평균 707.6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원문 평균 단어수 438.15개와 그에 따른 영어 번역문의 평균 단어수 707.6개를 비교하면 영어 번역문에서 269.45개가 증가했고, 영어 원문의 평균 단어수 767.1개와 그에 따른 한국어 번역문의 평균 단어수 570.3개를 비교해보면 한국어 번역문에서 196.8개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단어 사용 빈도에 따른 양 언어간의 번역 현상을 통해 이러한 양 언어의 단어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고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의 단어수의 차이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첫째 요인은 한국어와 영어의 형태 및 통사구조적

로 받아들이는 현재, 조사와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이론과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이관규 2002: 116).

- 2) 병렬식 말뭉치(parallel corpus)를 이용하여 단어수를 분석한 위 <그림-1>은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를 종류별로 10편씩을 선별하여 각각 40문장씩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텍스트를 위한 분석단위인 텍스트별 40문장은 임의로 선택한 『뉴욕 타임즈』(2002. 9. 4)의 주요기사의 기본 문장수를 따랐다.

차이인데, 이는 한국어는 첨가어에 속하며 영어는 굴절어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 요인은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어와 영어 인칭대명사는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인칭대명사가 선택(어휘)범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 언어의 범주의 차는 번역자가 번역하고자 하는 번역 접근법, 즉 원천언어에 ‘충실한 번역’ 방법과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의 텍스트는 단어수의 증감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³⁾ 그러므로 한국어 문장이 영어 문장에 비해 단어수가 적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형태·통사적인 특징’과 ‘번역 접근법의 결정’을 제안한다. 특히 본 고는 말뭉치를 기반을 둔 접근법을 통찰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영어의 번역 단어수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형태·통사구조적인 요인에는 전치사가, 번역가의 번역접근법에서는 3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를 사례로 제시하여 중점적으로 논하도록 한다.

2. 형태·통사 구조에 따른 번역 단어수 증감

2.1. 한국어 - 영어의 형태·통사 구조적 특징

언어는 구조나 형태적 특성에 따라 굴절어, 고립어, 첨가어, 포함어로 분류하는데 이중 한국어는 첨가어(교착어)에, 영어는 굴절어에 속한다. 첨가어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첨가되어야 단어를 생성한다. 예를 들자면 말의 주체인 주어라 되기 위해서는 ‘은, 는, 이, 가’와 같은 요소를 체언(명사)에 첨가하고, 목적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체언에 ‘을, 를’을 붙여 문장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게 된다. 또한 서술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언의 ‘어

3) 본고에 사용된 원문에 ‘충실한 번역 방법(faithful translation)’과 번역문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natural translation)’은 필자가 제시한 용어로 번역 과정이 아닌 번역 현상의 결과물을 비교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임을 밝힘.

미+다, 어미+었다’를 첨가하게 된다. 이때 체언에 첨가된 요소를 ‘조사’라고 하며, 용언에 첨가된 요소를 ‘활용어미’라고 일컫는다. 반면 굴절어는 조사처럼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특별한 형태소가 필요 없고, 단어 자체의 어형 변화나 명사의 단수, 복수 표시, 동사의 어형 변화 등을 통해 표현한다. 예문을 들어 첨가어와 굴절어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1)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 He loves her.

위의 (1)를 보면 첨가어인 한국어는 ‘그’에 ‘-는’이, ‘그녀’에 ‘-를’이 첨가되어 주어와 목적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고 있으며, ‘사랑한다’는 ‘사랑하’에 어미 ‘-다’가 첨가되어 문장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랑한다’는 ‘사랑했다, 사랑할 것이다’ 등과 같이 ‘사랑하-’를 중심으로 ‘어미+다, -었다, 르 것이다’가 결합하여 과거나 미래와 같은 시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굴절어인 영어는 ‘he, her’이라는 고정된 인칭대명사가 한 단어로 존재하며 서술어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love’에 형태소 ‘-s’를 붙여 그 관계를 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첨가어인 한국어와 굴절어인 영어의 형태적인 특징은 통사 구조적인 특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어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첨가어적인 요소로 인하여 어순 배열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후치사적인 특성과 화자와 청자 및 상황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호칭과 존칭법이 발달해있다. 반면 영어는 굴절어로서 단어 자체의 어형변화나, 단수, 복수에 의한 표현 및 단어 하나로도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영어는 다양한 통사 구조적인 범주를 보였는데 고정적인 어순 배열이나 전치사, 관사, 접속사 및 수식어 구조로 인한 관계사 등이 한국어와 그 특징을 달리하는 모습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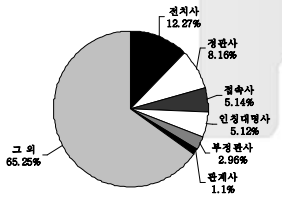
22. 영어의 통사 구조적 범주 사용 빈도

한국어와 영어는 그 고유의 언어적 특징으로 한 언어에 존재하는 범주가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다른 범주로 간주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정관사의 범주를 생각해 보면 한국어에는 그런 범주가 없으므로 번역시 정관사는 대부분 생략된다. 또한 영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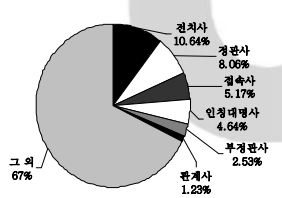
전치사도 한국어로 번역시 단어 하나로 문법적 범주를 표시하지만, 한국어로 옮기게 되면 체언에 조사를 붙여 하나의 단어로 되거나 생략된다. 따라서 번역자가 원천 언어를 중시하여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목표언어를 번역한다고 하여도 영어와 한국어 텍스트 간에는 상당한 단어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앞 절에서 살펴 본 <그림-1>의 한국어와 영어간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수를 다시 살펴보면 한국어 원천언어텍스트와 목표언어텍스트가 438.15/570.3개이며, 영어 원천언어텍스트와 목표언어텍스트는 767.1/707.6개로 한국어 문장의 단어수가 영어 문장에 비해 269.45/196.8개 적게 분석된 원인으로 한국어-영어의 형태·통사적인 구조의 차이가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한국어-영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단어수의 차이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문법적 범주가 다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어 원천언어 텍스트나 목표언어 텍스트에 관계없이 단어의 차는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어와 영어간의 언어적 성격 때문에 번역시 단어수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영어의 문법 범주인 기능어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특히, 텍스트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치사, 정관사, 접속사, 인칭대명사, 부정관사, 관계사는 사용된 빈도수만큼 한국어의 문장의 단어수가 차이 나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 제시된 <그림 2-1>와 <그림 2-2>의 영어 원천언어텍스트와 영어 목표언어 텍스트의 기능어의 비율을 참고하여 한국어-영어간의 단어의 증감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2-1>영어 원문 기능어 평균 사용 비율(EST)



<그림2-2>영어 번역문 기능어 평균 사용 비율(TT)

위의 <그림2-1>과 <그림 2-2>를 살펴보면 영어 문장의 기능어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은 전치사이며 그 비율은 12.27/10.64%이고, 가장 낮은 빈도는 관계사로 1.1/1.23%로 문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범주에는 이러한 기능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나 혹은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양 언어간의 단어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위의 기능어 중 인칭대명사는 한국어와 영어간의 형태·통사 구조적 특징으로 단어수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문법 범주보다는 선택 범주로 상황과 구문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므로 번역자의 번역 접근법에 따라서 단어수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분석되므로 양 언어간의 인칭대명사는 2장에서 별도로 다루기도 하며, 이 장에서는 영어 텍스트에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전치사를 그 사례로 들어 번역 현상에 따른 단어수의 차이를 조명 하도록 한다.

2.3. 전치사의 번역현상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치사이다. 전치사는 개별 단어만으로도 문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여 영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시 전치사는 대부분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는 조사로 번역되며, 체언에 첨가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루거나 생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전치사의 번역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1-1> 전치사와 번역 현상

E(ST)	K(TT)
i) nor, because the game is the object, does he reject deductions ^① from things external ^② to the game. He examines the countenance ^③ of his partner, comparing it carefully ^④ with that ^⑤ of each ^⑥ of his opponents.	i) 게임이 목적이라고 해서 게임 ^② 이외의 ^① 일에서의 연역을 거부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는 ^③ 자기편(φ) 얼굴 표정을 음미하여 그것을 ^⑥ 상대편(φ) 두 ^⑤ 사람의 ^④ 표정과 상세히 비교 검토한다.

위의 <사례1-1>의 문장에서 ‘from, to, of, with’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전치사가 여섯 번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모두 개별적인 단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한국어 번역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영어 원문에 쓰인 ‘^①from, ^②to, ^④with’와 ‘^⑤of’는 ‘^①일에서의, ^②이외의, ^④표정과, ^⑤사람의’에서 ‘의’와 ‘과’는 조사로 옮겨져 체언에 첨가되었고, ‘^③of 와 ^⑥of’는 생략되었다. 이처럼 별도의 단어로 존재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한국어로 번역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①일에서의, ^②이외의, ^④표정과, ^⑤사람의’ 처럼 체언 뒤에 첨가되어 하나의 단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되었다. 결국은 여섯 개의 단어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례1-2> 전치사와 번역 현상

K(ST)	E(TT)
i) 권력은 그 ^① (Φ) 반쯤만 내 편인 사람들을 진짜 내 편 ^② 으로 ^③ 변화시키고, 적을 중립적인 ^④ 입장으로 ^⑤ 바꿔가면서 다수파 ^⑥ (Φ) ^⑦ (Φ) ^⑧ 정권으로 성장한다	i) Power holders grow ^⑧ as a regimen ^⑦ for the majority ^⑥ of people ^{③⑤} by transforming some half ^① of their voters ^② into true supporters, and enemies ^④ into neutrals.

위의 <사례1-2>중 한국어 원문을 살펴보면, ‘^②내 편으로, ^④입장으로, ^⑧정권으로’는 체언에 조사를 첨가한 표현이고, ‘^③변화시키고, ^⑤바꿔가면서’는 용언에 활용어미를 첨가한 표현이다. 이를 영어 번역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어 원문의 ‘^②내 편으로, ^④입장으로, ^⑧정권으로’의 조사 ‘으로’가 영어의 전치사 ‘^②into, ^④into, ^⑧as’로 번역되었고, ‘^③변화시키고, ^⑤바꿔가면서’의 활용어미 ‘고’, ‘가면서’는 영어의 전치사 ‘^③, ^⑤by’ 하나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한국어 원문에서는 조사와 활용어미는 단독으로 하나의 단어를 생성하지 못하고, 체언이나 용언에 첨가되어 나타난다.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한국어의 조사와 활용어미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나의 단어로 존재할 수 있는 전치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전치사의 단어만큼 영어의 단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어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①(Φ) 반쯤만, 다수와 ⑥(Φ), ⑦(Φ) 이 영어 번역문에 전치사 ‘① of, ⑥of, ⑦for’ 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원문에 없는 단어가 영어 번역 문에는 세 개의 단어나 나타났으므로 영어의 전치사의 단어수 만큼 전체 단어 수도 증가하였다. 결국 <사례1-2>의 영어 번역문에는 일곱 개의 단어가 증가하였다.

24. 전치사의 번역 현상에 따른 단어수 심층 분석

<표-1> 텍스트당 전치사 사용 빈도

(1) E(ST)→K(TT) (2) K(ST)→E(TT)

	평균 단어수	전치사 평균수	전치사 비율		평균 단어수	전치사 평균수	전치사 비율
E(ST)	767.1	94.1	12.27	K(ST)	438.15	0	0.0
K(TT)	570.3	0	0.0	E(TT)	707.6	75.3	10.64

앞의 2.1절의 <그림2-1>과 <그림2-2>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치사는 기능어 중 텍스트당 단어 사용 빈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비율도 12.27/10.64%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표-1>를 보면 영어 텍스트(ST/TT)의 평균 단어수는 767.1/707.6개이고, 전치사의 평균 단어수는 94.1/75.3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원문에 포함된 전치사는 대부분 체언 뒤에 붙는 조사로 번역되거나 생략되므로 그만큼 전체 단어 수는 줄게 된다. <사례1-1>에서 두 문장을 비교한 결과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시 전치사 여섯 개중 개별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즉 단어수 면에서 여섯 개가 모두 감소하였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표-1>의 (1)에서 영어 (ST)의 전체 평균 단어수 767.1개가 한국어(TT)에서 570.3개로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전치사를 꼽을 수 있다. 반대로 <사례1-2>의 한국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시 한국어 원문에는 체언에 조사를 첨가하거나, 용언에 활용어미를 첨가하여 표현된 단어들 이 영어 번역문에는 네 개의 개별적인 전치사로 표현되었다. 또한 한국어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영어 번역문에는 세 번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단어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를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표-1>의 (2)에서 한국어(ST)의 전체 평균 단어수 438.15개가 영어(TT)에서 707.6개로 증가한 것이 바로 한국어의 조사나 활용어미의 특성과 한국어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개별적인 영어의 전치사로 나타나면서 영어(TT)에서는 75.3개나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 분석 결과

지금까지 영어의 전치사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번역 단어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양 텍스트에서 전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7%/10.64%의 사용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치사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이므로 한국어 번역문에는 생략되거나, 조사나 활용어미, 연결어미로 옮겨져 체언과 용언에 첨가되는 요소로 존재할 뿐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지 못하므로 한국어 문장에는 단어수가 감소된다. 반면 한국어 문장을 영어 번역문으로 옮길 경우 한국어에 나타난 체언이나 용언에 첨가되어있는 조사나 활용 어미, 연결 어미 등이 전치사 및 접속사, 관계사 등으로 표현되므로 영어 번역문에는 단어의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영어의 정관사 및 접속사, 부정관사도 전치사와 같은 현상을 보였다.

3. 3인칭대명사의 번역 접근법에 따른 단어수 증감

한국어의 지시표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지시표현의 하나인 대용어에 관한 연구와 함께 시작되어 장식진에 이르러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976). 할리데이와 핫산(Halliday and Hansan)은 영어의 지시는 결속 구조를 이루는 다섯 개의 장치 중 하나이며 언어간, 언어 내에서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1976). 특히 지시의 한 유형인 3인칭대명사는 한국어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어 인칭마다 형태가 배당되어 있는 영어 인칭대명사와는 다른 체계를 보인다. 즉,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표에도 볼 수 있듯이 영어의 인칭대명사는 한국어와 달리 대우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인칭 구분을 볼 수 있지만,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는 한국어의 특징인 대우법과 깊게 관련되어 다양한 단어로 표현된다.⁴⁾ 영어의 3인칭 대명사가 다른 1, 2인칭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문법 범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는 개별적 인칭대명사보다는 화자와 청자간의 관계 및 상황과 장소에 따라 그에 합당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텍스트의 효용성을 위하여 적절히 생략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는 1, 2인칭과는 달리 고유한 형태가 없고 지시 관형사와 (의존)명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친족 관계 호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영어의 'she'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그녀'는 서양 문물과의 접촉과정에서 생겨난 언어라고 보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3인칭 대명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 번역 현상에 따른 번역 접근법:

'충실한 번역 방법'과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

한국어와 영어는 각각 첨가어와 굴절어라는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사 구조와 범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볼 인칭대명사는 양 언어에서 모두 문법 범주에 속하기 하지만,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는 보통 선택 범주로 간주되어 상황과 문맥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며, 화자와 청

4) 서정수(1996:494), 『국어문법 수정증보판』, 한양대출판부

-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 대비표 -

갈 래	인 칭	대 상	한 국 어	영 어
인 칭	1	화자 평체	나/우리	I/we
		접사	저/저희	
	2	청자 평체	너	you
		존체	당신	
3	3자 평체	그/ 그녀 /그들/그 사람	he/she/they	
	존체	그이/그분/그분들		

서정수는 한국어와 영어의 대명사 대비표에 3인칭대명사 '그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관규(학교문법론)는 현대에는 '그녀'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필자의 발음치 기반 분석에서도 이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므로 위의 대비표에 포함시켰음.

자의 관계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호칭 및 지칭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번역가는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 번역 전략에 있어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She had not had the money to attend college, although she later took college courses for credit’라는 영어 문장에는 3인칭 대명사가 두 번 사용되었다.⁵⁾ 이러한 경우 번역자는 ‘충실한 번역’과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물론 ‘충실한 번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즉 충실성의 대상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전통적인 번역학에서는 원문을 가장 중요시하여 원문의 형태와 단어를 그대로 옮기는 방법인 ‘직역’을 ‘충실한 번역’이라고 평가하여 이를 번역 방법의 한가지로 택하고자 한다. 반면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이란 원문보다도 번역문을 중시하여 마치 원래 목표언어로 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번역하는 방법이다. 현대에는 번역문 독자를 고려하는 이러한 번역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위 예문을 ‘충실한 번역’과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으로 각각 번역해 보도록 하자. 먼저 ‘충실한 번역’ 방법을 취할 경우 위 예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그녀는 나중에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긴 하셨지만,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 대학에 못가셨지요.’ ‘충실한 번역’ 방법을 취할 경우 예문에 쓰인 두 번의 영어의 3인칭 대명사 ‘she’는 원천언어의 형태와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에도 3인칭 대명사 ‘그녀’를 두 번 표현하게 된다. 이번에는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을 택하여 번역해 보도록 하자. 한국어의 경우 상황과 문맥에 따라 인칭 대명사 특히 주어로 사용되는 인칭대명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어의 이런 성격을 살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나중에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긴 하셨지만, ()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 대학에 못가셨지요.’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을 취할 경우 영어 예문에 쓰인 두 번의 3인칭 대명사 ‘she’는 한국어의 인칭대명사 특성상 빈번히 생략되므로 한국어 예문에서는 두 번째로 쓰인 ‘she’를 생략하여 한국어 문장에 드러내지 않도록 번역하여 마치 목표언어로 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단어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된 예문을 살펴보면 ‘충실한 번역’ 방법을 사용하여 영어를 한국어

5) 곽성희(2001:40, 46)에서 인용한 것임.

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 원문에 사용된 두 번의 인칭대명사는 한국어 번역문에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어수의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반면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을 택하면 영어 원문에 사용된 두 번의 인칭대명사는 한국어 번역문에 한 번만 표현되고 나머지 한 번은 생략되어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게 되므로 한국어 번역문은 한 개의 단어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번역자가 번역과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번역 방법은 한국어-영어의 인칭대명사의 단어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2. 3인칭 대명사의 특징과 번역 접근법⁶⁾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중 3인칭 대명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번역자의 번역 접근법에 따라 단어수의 증감 현상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녀’의 쓰임이 상당히 활발하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적 텍스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번역된 표현적 텍스트에서도 영어의 3인칭 대명사 ‘she’는 ‘그녀’로 많이 표현되어있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선택 범주인 한국어 3인칭 대명사와 문법 범주인 영어의 3인칭 대명사를 양 언어로 옮길 경우 원문의 3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목표언어로 옮기는 ‘충실한 번역’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하여 생략이나 호칭을 사용한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전략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텍스트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3인칭 대명사의 한국어-영어간의 단어수의 차이가 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번역 현상에 따른 번역 접근법과 단어수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6) 본고를 위해 정보적 텍스트와 표현적 텍스트를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나, 1인칭 대명사를 제외하고 텍스트 유형에 따른 유형별 단어수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는 3인칭 대명사는 텍스트 유형을 나누지 않고 번역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최정아(2002: 12)를 참고.

<사례2-1> 3인칭 대명사의 번역 현상

E(ST)	K(TT)
i) ^① (Φ)To inquiries made by some persons who watched ^② her away, the answer came that ^③ she was the secondwife.....of a neighboring parish, and that ^④ she was lame.	i) ^② 그녀가 사라져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① 그녀에 대해 묻자, 누군가가 ^③ 그녀는 이웃 교구(敎區).....후처로서 ^④ (Φ)절름발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ii) But ^⑤ they did not show it and ^⑥ they spoke politely about the current and the depths ^⑦ they had drifted ^⑧ their lines at and of what ^⑨ they had seen.	ii) 그러나 ^⑤ (Φ)내색은 하지 않고, ^⑥ (Φ)조류(懶流)가 어땡고 ^⑦ (Φ)어느 정도의 깊이에 ^⑧ (Φ)낚시줄을 내렸으며.....같다는 등 ^⑨ (Φ)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만 점잖게 이야기했다.
iii) The clerk handed ^⑩ him a railroad ticket..... the law expected ^⑪ him to rehabilitate and prosperity. The warden gave ^⑫ him a cigar, and shook hands.	iii) 선량한 시민으로 바라는 법률이 ^⑩ (Φ)주는 기차표와 직원이 ^⑪ 지미에게 주었다. 형무소장은 ^⑫ 그에게 엽권련을 한 대 주면서 악수를 청했다.

위의 <사례2-1>의 영어 원문은 세 개의 문장에 모두 열 한번의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영어 문장을 한국어 번역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영어 원문 i)의 원문에 쓰인 ‘^②her, ^③she, ^④she’ 는 ‘^①그녀에, ^③그녀는, ^④(Φ)’ 으로 옮겨져 영어 문장의 ‘^②her, ^③she’ 에 해당하는 3인칭 대명사 ‘^①그녀에, ^③그녀는’ 이 번역문에 나타났고 ‘^④she’ 는 한국어번역문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영어 원문 i)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의 번역 전략은 영어의 원문에 표현된 3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한국어에 옮김으로서 영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 방법으로 간주된다. 반면 영어 원문 ii)와 iii)에서는 ‘^⑤they, ^⑥they, ^⑦they, ^⑧their, ^⑨they, ^⑩him, ^⑪him, ^⑫him’ 이 여덟 번의 3인칭 대명사와 사용되었다. 이를 한국어 번역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영어 ii)의 문장에 쓰인 3인칭 대명사 ‘they’ 는 한국어 문장에는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고, 영어 iii)의 원문에 쓰인 ‘^⑩him, ^⑪him, ^⑫him’ 은 ‘^⑩지미에게, ^⑪(Φ), ^⑫그에게’ 로 옮겨져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났다.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알 수 있는 상황이면 생략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영어 원문 ii)과 iii)대한 한국어 번역문은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첫 번째 영어 원문에 사용된 세 번의 3인칭 대명사는 한국어 번역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 방법으로 인하여 두 개의 단어는 3인칭 대명사로 존재하고 있고, 한 개의 단어는 사라졌다. 또한 영어 원문 ii)과 iii)에서 사용된 여덟 개의 3인칭 대명사가 한국어 번역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여섯 개의 단어가 사라졌다. 결국 한국어 번역문에는 모두 여덟 개의 단어가 줄어든 것이다.

<사례2-2> 3인칭 대명사의 번역 현상

K(ST)	E(TT)
i) ^① 그는 팽팽하게 불러 오른 땡푹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 메고 ^② (<u>Φ</u>)머리에는 개털모자를 ^③ (<u>Φ</u>)귀까지 ^④ (<u>Φ</u>)가려 쓰고 있었다.	i) ^① He had a tautly bulging rucksack thrown loosely over one shoulder, and on ^② his head ^④ he was wearing a dog-hide cap that covered even ^③ his ears.
ii) ^⑤ 그는 피로했으나 상냥하게 ^⑥ (<u>Φ</u>)웃으면서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하면서 ^⑦ (<u>Φ</u>)말을 했다.	ii) Although ^⑤ he was tired ^⑥ he laughed amicably as ^⑦ he spoke, all the time continuing to pound on the door.
iii) ^⑧ 그들은 교단 위에 서 있는 교사에게서 ^⑨ (<u>Φ</u>)눈을 떼지 않았다.	iii) ^⑧ They could not take ^⑨ their eyes off the teacher on the platform.

위의 <사례2-2>의 한국어 번역문에는 모두 세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이를 영어의 3인칭 대명사의 번역 사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어 원문에 쓰인 3인칭 대명사 ‘^①그는, ^⑤그는, ^⑧그들은’ 이 영어의 3인칭 대명사 ‘^①he, ^⑤he, ^⑧they’ 로 번역되었다.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①he, ^⑤he, ^⑧they’ 외에도 3인칭 대명사 ‘^②his, ^④he, ^③his, ^⑥he, ^⑦he, ^⑨their’ 이 쓰였다. 한국어 원문의 3인칭 대명사는 상황에 따라 이해되면 빈번히 생략되는 경향이 있고 격에 따른 쓰임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영어 번역문에서 3인칭 대명사는 문법 범주이므로 화자나 청자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며,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사용도 활발하다. 따라서 한국어 원문에는 생략된 3인칭 대명사가 영어 번역문에는 여섯 개나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영어 문장에는 여섯 개의 단어가 증가하였다.

3.3. 3인칭 대명사의 번역 단어수 통계 심층 분석

한국어와 영어의 단어수는 형태·통사 구조적인 특성과 번역가의 번역 접근법에 따라서 차이를 드러낸다. 앞의 2.1부에서 살펴본 영어의 전치사와 그 외의 정관사 및 부정관사, 접속사, 관계사 등은 양 언어간의 형태·통사 구조의 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 장에서 살펴 본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는 번역가의 번역 접근법에 따라 단어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 2.1부의 <그림2-1>과 <그림2-2>의 영어의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문법 범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영어 원천언어텍스트의 인칭대명사는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2/4.64%로 전치사와 정관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에 제시된 한국어-영어간의 인칭대명사의 번역 접근법에 따른 번역 통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2> 인칭대명사 증/감율 비교

(1) E(ST)→K(TT)

(2) K(ST)→E(TT)

	평균 단어수	대명사 갯수	대명사 비율	대명사 증감율		평균 단어수	대명사 갯수	대명사 비율	대명사 증감율
E(ST)	767.1	35.6	4.64	100.00	K(ST)	438.15	11.08	2.69	100.00
K(TT)	570.3	13.3	2.33	-267.67	E(TT)	707.6	36.2	5.12	+326.71

위의 <표-2>의 (1)과(2)의 한국어-영어의 인칭대명사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어의 인칭대명사(ST/TT)는 영어 문장에 비해 267.67/+326.71%의 증감 현상을 보였으며, 텍스트당 35.6/36.2개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의 범주에 따른 번역자의 번역 접근법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3인칭 대명사의 번역 접근법과 단어수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중 3인칭 대명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사례2-1>과 <사례2-3>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영어 원문에는 열네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고, 한국어 번역문에는 여섯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고, 한 개는 명사로 옮겨져 일곱 개의 3인칭 대명사가 한국어 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⁷⁾ 결과적으로 한국어 번역문은 영어 원문에 비해 열 개의 단어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례2-2>와 <사례2-4>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원문에는 여섯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영어 번역문과 비교해 보면 영어 번역문에는 열네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어 영어 문장에는 여덟 개의 단어가 증가한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3인칭 대명사의 번역 접근법에 따른 단어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3> 3인칭 대명사 대조표

(1) E(ST)→K(TT)

	E(ST)	K(TT)	E(ST)/K(TT)
평균 단어수	767.1	570.3	사용빈도비율
3인칭	25	8.3	-301.2%

(2) K(ST)→E(TT)

	K(ST)	E(TT)	E(ST)/K(TT)
평균 단어수	438.15	707.6	사용빈도비율
3인칭	5.78	21.6	+373.7%

위의 <표-2>의 (1)과(2)의 한국어-영어의 인칭대명사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어의 인칭대명사(ST/TT)는 영어 문장에 비해 267.67/+326.71%의 증감 현상을 보였으며, 텍스트당 35.6/36.2개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의 범주에 따른 번역자의 번역 접근법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3인칭 대명사의 번역 접근법과 단어수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중 3인칭 대명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사례2-1>과 <사례2-3>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영어 원문에는 열네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고, 한국어 번역문에는 여섯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고, 한 개는 명사로 옮겨져 일곱 개의 3인칭 대명사가 한국어 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⁸⁾ 결과적으로 한국어 번역문은 영어 원문에 비해 열 개의 단어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례2-2>와 <사례2-4>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원문에는 여섯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영어 번역문과 비교해 보면 영어 번역문에는 열네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어 영어 문장에는 여덟 개의 단어가 증가한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3인칭 대명사의 번역 접근법에 따른 단어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7) <사례2-3>과 <사례2-4>의 정보적 텍스트의 3인칭 번역현상은 부록에 수록하도록 함.
 8) <사례2-3>과 <사례2-4>의 정보적 텍스트의 3인칭 번역현상은 부록에 수록하도록 함.

<표-3> 3인칭 대명사 대조표

1) E(ST)→K(TT)

	E(ST)	K(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767.1	570.3	
3인칭	25	8.3	-301.2%

(2) K(ST)→E(TT)

	K(ST)	E(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438.15	707.6	
3인칭	5.78	21.6	+373.7%

위의 <표-3>의 평균 3인칭 대명사를 사용 빈도와 다른 1, 2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를 비교하여 보면 영어의 3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9) 따라서 번역가의 번역 접근법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의 3인칭 대명사는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양 언어간의 단어수의 차이도 달라질 것이다. 앞 절의 <사례2-1>과 <사례2-3>을 토대로 한국어-영어간의 3인칭 대명사를 비교한 결과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시 열네 개 중 여섯 개는 한국어의 3인칭

9) 다음은 말뭉치 기반 분석을 통한 1, 2인칭 대명사 대조표이다.

1인칭 대명사 대조표(표현적 텍스트)

E(ST)→K(TT)

	E(ST)	K(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703.6	517.6	
1인칭	8.8	2	-440%

K(ST)→E(TT)

	K(ST)	E(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362.6	555	
1인칭	5.4	12.6	+233%

1인칭 대명사 대조표(정보적 텍스트)

E(ST)→K(TT)

	E(ST)	K(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830.6	623	
1인칭	10.8	6.2	-174.2%

K(ST)→E(TT)

	K(ST)	E(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513.8	860.2	
1인칭	5	10.2	+240%

2인칭 대명사 대조표

E(ST)→K(TT)

	E(ST)	K(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767.1	570.3	
2인칭	1.2	0.6	-200%

K(ST)→E(TT)

	K(ST)	E(TT)	E(ST)/K(TT) 사용빈도비율
평균 단어수	438.15	707.6	
2인칭	0.1	3.4	+340%

대명사로 옮겨졌고, 한 개는 명사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영어 원문에 비해 일곱 개의 단어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양 언어간의 단어수의 차이는 번역자가 번역 접근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목표언어에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표-3>의 (1)를 살펴보면 영어(ST)의 3인칭 대명사는 평균 25개가 사용되었는데 한국어(TT)에는 8.3개의 단어로 감소한 이유로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영어의 전체 평균 단어수 767.1개가 한국어(TT)에서 570.3개로 감소한 원인은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가 결정하는 번역 접근법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사례2-2>와 <사례2-4>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시 한국어(ST)에는 여섯 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으나 영어 번역문에는 14개의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영어 번역문은 한국어 원문에 비해 여덟 개의 단어가 증가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표-3>의 (2)를 살펴보면 한국어(ST)의 3인칭 대명사 개수 5.78개가 영어(TT)에서 21.6개로 증가한 이유로는 목표언어인 영어의 문법 범주에 맞는 번역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ST)의 전체 평균 단어수 438.15개가 영어(TT)에서 707.6개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3.4. 분석 결과

앞의 1부에서 살펴본 한국어-영어간의 형태·통사 구조적 특징은 영어에는 문법 범주로 존재하지만 한국어에는 그에 해당하는 범주가 없기 때문에 양 언어간의 번역시 단어수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반면 이 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영어의 3인칭대명사를 중점으로 한 번역 단어수의 차이는 번역자의 번역 접근법 즉, ‘충실한 번역’ 방법과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어와 영어의 3인칭 대명사는 1인칭과 2인칭에 비해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어의 3인칭 대명사가 문법 범주인데 반해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는 선택 범주로 전통적으로 친족 관계 호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게 상례였기 때문에 크게 발달되어 있는 범주는 아니며 서양 문물과의 접촉과정에서 생겨난 단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인칭 대명사보다

도 한국어-영어의 3인칭 대명사는 번역자의 번역 방법에 따라 번역 단어수의 차이는 상당히 달라진다. 분석된 텍스트의 번역 현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통계 결과를 보면, 영어의 3인칭 대명사(ST/TT)는 평균 인칭대명사수 35.6/36.2개 중 25/21.6개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ST/TT)는 평균 인칭대명사수 11.08/13.3개 중 5.78/8.3개로 영어와 한국어 모두 절반이 넘는 사용 빈도를 보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의 증감율을 비교해 보면 영어 문장에 비해 한국어 문장은 16.7/+15.82개의 단어가 감소 및 증가함으로써 301.2/+373.7%의 비율을 보여 상당한 차의 번역 단어수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어-영어의 3인칭 대명사의 번역 단어수는 번역자가 결정한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번역자가 영어의 3인칭 대명사를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을 취하여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녀’ 라는 호칭이 쓰이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의 대비표와 이 현상을 대조해 볼 때, 이는 한국어의 문법 교육과 실제 생활의 언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경우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번역학에 대한 담론을 실제로 사용된 언어 자료를 그대로 모아 놓은 것, 즉 말뭉치 기반 분석에 적용하여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의 원문과 번역문의 현상을 비교하였다. 특히 양에 기반을 둔 분석법(quantitative corpus analysis)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출현 빈도(frequency)를 분석한 것이므로 한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 드물게 사용되지를 알 수 있으며, 출현 단어와 그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보면 해당 텍스트의 장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말뭉치의 이러한 장점을 취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번역 단어수의 증감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단어수의 증감요인 중 첫 번째로는 한국어와 영어의 형태 및 통사 구조적 특성을 꼽을 수 있었다. 한국어는 첨가어인데 반해 영어는 굴절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할 경우나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서로

의 언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어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단어수 증감의 둘째 요인으로는 번역자의 번역 접근방법을 꼽을 수 있었다. 한국어의 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인칭대명사는 그 쓰임이 선택적이므로 번역자는 번역물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충실한 번역’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한국어와 영어의 텍스트의 번역 현상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번역자들은 대부분 목표언어에 ‘자연스러움을 살린 번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경우 한국어 번역문의 단어수는 영어 원문의 단어수에 비해 그 수가 적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K C I

부록 1

<사례2-3> 3인칭 대명사의 번역 현상

E(ST)	K(TT)
<p>i) ^①they'll admit ^②they have to make room for the outside chance that these could be early warnings of a dreaded "double-dip" back into recession.</p>	<p>i) 그러나 ^①그들도 이것들이 염려하던 '더블딥' 퇴행의 초기 징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②(Φ)인정할 것이다.</p>
<p>ii) That stretched Indonesia's already limited intelligence services well beyond ^③their means, una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fact and fiction.</p>	<p>ii) 이미 ^③(Φ)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보국은 사실과 거짓된 정보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다.</p>
<p>iii) "I think the economy's momentum is.....in that prediction," Bill Cheney, chief economist at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s, told CNNfn's CNNmoney Morning program. ^④(Φ)"I haven't changed my forecast, but I've become a lot less certain about it."</p>	<p>iii) 존 헨콕 파이낸셜 서비스의 빌 체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나는 미국 경제가 확신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④그는 "내 예측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p>

<사례2-4> 3인칭 대명사의 번역 현상

K(ST)	E(TT)
<p>i) 비록 김정일이 권력을 완전히 승계한다 하여도, ^①그는 ^②(Φ)정통성 및 카리스마 결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p>	<p>i) Even though Kim Jong Il has succeeded in taking complete power, ^①he is facing difficulties due to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②his lack of legitimacy and charisma.</p>
<p>ii) 한국의 안전보장이 김정일 한 사람의 태도에 좌우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이상, ^③(Φ) ^④그의 생각이 경직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p>	<p>ii) It is a frustrating situation to have the South's security guaranteed by Kim, but as long as that's the situation all one can hope for is that ^③he doesn't become too inflexible in ^④his thinking.</p>
<p>iii) 문제는 ^⑤그의 「거짓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p>	<p>iii) The problem is not ^⑤the lie itself.</p>

부록 2

다음은 분석 자료로 사용된 한국어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이다.

<표1-1> 한국어 원천언어텍스트와 영어 목표언어 텍스트

한국어 원천언어 텍스트(K(ST))		영어 목표언어 텍스트(E(TT))	
제 목	저 자	제 목	역 자
뫼비우스의 띠	조 세 희	Mobius Loop	Hyon Joongshik & Han Hakjoon
무진기행	김 승 옥	Record of a Journey to Musin	Kevin O'Rourke
삼포가는 길	황 석 영	The Road to Samp	Bredan Mchal
엄마의 말뚝	박 완 서	Mother's Stake	Yoo Younglan
타인의 방	최 인 호	Another Man's Room	Kevin O'Rourke
격(格)	류 근 일	Low-class-is	Yoo Kun IL
북한체제의 특성	전 인 영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Chun In-young
세시풍속과 의례	최 길 성	Annual Ceremonies and Riturals	Choi Gil-sung
頂上게임의 敗者	김 대 중	The Loser of the Pyongyang Summit	Kim Dae-joong
진짜 敗因은 敵 만들기다	강 천 석	The Real Cause for the Defeat - Making Enemies	Kang cheon seek

<표1-2> 영어 원천언어 텍스트와 한국어 목표언어 텍스트

영어 원천언어 텍스트(E(ST))		한국어 목표언어 텍스트(K(TT))	
제 목	저 자	제 목	역 자
A Retrieved Reformation	O. Henry	되살아난 개심	최 정 순
Red	Somerset Maugham	레드	권 응 호
The Murder in the Rue Mogue	Edgar Allan Poe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허 문 순
The Old Man and the Sea	Ernest Hemingway	노인과 바다	이 해 윤
The Son's Veto	Tomas Hardy	아들의 반대	김 희 진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De Beaugrande/Dressler	텍스트언어학입문	김태욱/이현욱
The Third Wave	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김 진 욱
Dictatorships and Double Standards	Charles Krauthamme	독재자 이중잣대 들이미는 미국	이 인 규
Whistling Past the Double-dip	Mark Gonglof	미국 때늦은 더블딕 우려	이 인 규
Who Bombed Bali?	Joe Havelly	누가 발리를 폭파시켰나?	김 수 진

참고문헌

- 곽성희. 2000. 「텍스트성과 번역전환: 영한번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창간호 1권, 93-117.
- 곽성희. 「영한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양상」, 『번역학연구』 46-57.
- 국립국어연구원. 1994.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권응호 옮김. 1995. 「레드」, 『달과 6펜스』. 서울: 헤원출판사, 307-309 (Somerset Maugham, W. 1978. “Red”, *Collected Short Stories Volume 4*, Penguin Books, 404-405).
- 김광희. 1992. 「인칭대명사의 조응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22, 159-189.
- 김수진 옮김. 2002. 「누가 발리를 폭파시켰나?」. <http://www.joins.com/cnn> (Joe Havelly. 2002. “Who Bombed Bali?”).
- 김일웅. 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문학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진욱 옮김. 1992. 『제3의 물결』. 서울: 범우사, 257-259 (Alvin Toffler. 1980.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243-245).
- 김태옥 · 이현옥 옮김. 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23-25(R. De Beaugrande and Dressler, Wolfgang, 1983.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4-16).
- 남기심 · 고영근. 2001.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96. 『수정 증보판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유영란 옮김. 1995. “Mother’s Stake Part on”, *What is Translation.*, Seoul: Tae Hak Sa, 173-174 (박완서. 1980. 「엄마의 말뚝 I」, 『번역이란 무엇인가』 1990. 서울: 태학사, 123-124).
- 이관규. 2002. 『개정판 학교 문법론』. 서울: 월인출판사.
- 이석규외 5명 공저.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출판사.
- 이인규 옮김. 2002. 「미국 때늦은 더블딕 우려」. <http://www.joins.com/cnn> (Mark Gongloff. 2002. “Whistling Past the Double-dip”).
- 이인규 옮김. 2002. 「독재자 이중 잣대 들이미는 미국」. <http://www.joins.com/cnn> (Charles Krauthammer. 2002. “Dictatorships and Double Standards”).

- 이해운 옮김. 1994. 『노인과 바다』. 서울: 홍신문화사, 12-14 (Ernest Hemingway. 1937. *The Old Man and the Sea*, Penguin Books, 5-7).
- 정무주. 1998. 「인칭대명사와 담화역할」, 『현대문법연구』 12, 169-186.
- 최정순 옮김. 1995. 「되살아난 개심」, 『오 헨리 단편선』. 서울: 홍신문화사 115-117 (O. Henry. 1984. “A Retrieved Reformation”, *41 Stories*, Penguin Putnam Inc, 126-128).
- 허문순 옮김. 2002.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포우 단편선』. 서울: 하서출판사, 64-66 (Edgar Allan Poe. 1986. “The Murder in the Rue Mogue”,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and Other Writhings*. Penguin Books, 189-191).
- Baker, M. 200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Brendan, Mchale (Trans). 1983. “The Road to Sampo”, *The Road To Sampo and Other Korean Short Stores*. U.S.A: Pace International Research, Inc, 1-2. (황석영. 1994, 「삼포가는 길」, 『한국대표작선집 소설』 3, 서울: 명문당 211-212).
- Choi, Gil-sung (Trans). 1980. *Customs and Manners in Korea*. Seoul: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33-35 (최길성. 1980. 『한국인의 생활 풍속』, 한국문화사리리즈 제 9편., 서울: 국제문화재단 출판부, 177-179).
- Chun, In-young (Trans). 1997. *Understan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Hanyang University, 117-119 (전인영. 1995.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본부』, 191-192).
- Greenberg, H. 1963.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 Greenberg, H. (Ed). 1978. *Universals of Human Languages*, 4 Vol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New York: Longman.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yun, Joongshik and Han Hakjoon (Trans). 1981. ‘Mobius Loop’, *Modern*

- Korean Short Stories*, New York: Larchwood Publications Ltd, 13-14 (조세희. 1994. 「피비우스의 띠」, 『한국대표작선집 소설』 3. 서울: 명문당, 279-280).
- Kang, Cheon-seok (Trans). 2002. “Real Cause For the Defeat”, <http://english.chosun.com>. (강천석. 2002. 「진짜 敗者는 敵 만들기다」. <http://www.chosun.com/editorials/>).
- Kim, Dae-Jung (Trans). 2002. “The Loser of the Pyongyang Summit.” [Http://english.chosun.com](http://english.chosun.com). (김대중. 2002. 「頂上게임의 敗者」, <http://english.chosun.com/editorials/>).
- Kirk, Sung Hee. 2001. *Translation And Textuality*. Seoul: Hankook Pubilshing Co.
- O'Rourke, Kevin (Trans). 1981. “Record of A Journey to Mujin”, *Ten Korean Short Stories*. Seoul: Yonsel University Press, 45-46 (김승욱. 1994. 「무진기행」, 『한국대표작선집 소설』 2. 1994, 서울: 명문당, 446-447).
- O'Rourke, Kevin (Trans). 1983. ‘Another Man’s Room’, *The Road To Sampo and Other Korean Short Stores*, U.S.A: Pace International Research, Inc, 88-89 (최인호. 1994. 「타인의 방」, 『한국대표작선집 소설 3』. 서울: 명문당, 113-114).
- Park, Kyu Son. 1986. *The Methodological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Hanshin Publishing Co.
- Shuttleworth, M Cowie, M. 1999.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St. Jerome.
- Sinnclair, John.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o, Kun-il (Trans). 2002. “Low-class-ism”. <http://english.chosun.com> (류근일. 2002. 「격(格)」. <http://www.chosun.com/editorials/>).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Difference of Word Numbers in Korean/English Texts through Parallel Corpus

Choi Jeong-a
(Seowon University)

Building on the discourse of translation studies which stand at a beginning stage,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xisting translation phenomena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Korean-English source language texts (SLT) and target language texts (TLT), and finding out factors which cause the fluctuation of the number of words in translation texts.

First of all, this study uses parallel corpus, one of the methods of the corpus linguistics, to study the factors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words in Korean/English text translation. Two factors are identified based on the corpus study of Korean source language text, English target language text, English source language text and Korean target language text.

First, the differences in forms and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and English are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of word number in source and target texts. Korean, an agglutinating language, has particles and suffixes. Korean is characterized by these morphemes, which do not stand alone. Particles are always added to uninflected words whereas suffixes to inflected words.

By comparison, English makes inflection of words to indicate grammatical relations instead of particular morphemes like Korean. The inflections of nouns, singular and plural forms, and verb inflection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inflective language. Specifically, Korean does not have in number difference between English and Korean a determining factor, function words including

preposition, definite and indefinite articles, personal pronouns, conjunction and relatives, which is translated into the difference of word number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 second factor is the translator's approach. The differences of word numbers partly depend on whether the translator chooses translation "faithful to the source language text" or "natural for the target language text." The difference of word numbers caused by different translation approaches are, in fact, due to the different categorization of personal pronouns in each language. In other words, the Korean personal pronouns, which fall into the grammatical category, are used practically as the lexical category, and thus often omitted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listener or the situation. In English, personal pronouns are not to be omitted because they belong to the grammatical category. Therefore, the personal pronouns are the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change of word numbers in SLT and TLT,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translator's approach.

The word count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texts, examined in this study through the translation phenomena, may set a good example in the approach of the corpus linguistics and toward the fledging Korean translation studies.



▶주제어: 병렬 말뭉치, 코퍼스, 번역, 단어수, 원문텍스트, 형태구조, 통사구조, 전치사, 인칭대명사